

인사말

눈 앞의 현안에서 멀리의 중장기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느라 오늘 내일을 걱정하다 보니, 어느새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면서 종단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교구본사 주지스님 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은 애종심은 종단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종단 쇄신의 실천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종단 현안의 여부를 떠나 협의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자주 모이셨기에 공의를 나누는 모습은 종단 중흥을 맞이하는 단단한 초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내년도 종단 예산안을 점검하고 주요한 현안 중무제도에 대해 좋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종도는 물론 국민의 많은 관심속에서 종단의 긴급한 현안들과 현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의 발휘는 예산증가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그러기에 중앙분담금을 동결하면서 예산을 능률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한 방침이기도 합니다.

과거 한정된 종단 예산으로 긴급한 목적사업을 집행하였던 어려움과 사안별 긴급 모금 등으로 나타났던 제방의 어려움은 종단의 공익법인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한 자발적인 기금출연으로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사찰과 스님들이 능동적이면서도 직접 기금을 출연한다는 사회의 인식 전환은 무엇보다 큰 얻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원은 종단 운영에 있어서 교구본사의 의견수렴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중무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의견수렴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논의하게 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보존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교구본사의 행정강화와 현실화를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중무행정의 개선을 주의깊게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산중의 책임자로서 종도에게 큰 격려와 의지처의 역할을 다하며 불법홍포에 진력하여 공심으로 종단을 위하겠다는 원력의 여전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